

“다시 해체할 일 없도록 만전 기하자”

1270년만의 석가탑 전면 해체 복원을 보며

불탑(佛塔)은 산스크리트어로 ‘스투파(stupa)’라고 한다. 스투파는 원래 뼈를 담고 토석을 쌓아올린 묘란 의미로 부처님의 사리와 의복 등을 담은 근본불탑에서 시작됐다. **(본지 908호 게재)**

중국의 벽돌탑인 전탑(塼塔), 일본의 목탑과 달리 한국은 석탑이 대표적인 양식이다. 이런 한국 석탑의 대표주자인 불국사 석가탑이 9월 27일 전면적인 해체복원에 들어갔다. 이번 해체수리는 총 30억 원 규모로 석가탑 전체를 들어냈다 다시 쌓아올리는 등 여타 석탑 해체수리와는 달리 그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탑 아래 기단이 불안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실상 발굴조사가 유력 시되고 있다. 석가탑 해체복원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은 조언을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n.com

2014년까지 완벽한 복원

먼저 이번 해체수리를 지휘하는 배병선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경주 석조문화재보수정비사업단 단장은 완벽한 복원을 강조했다.

배 단장은 “해체수리가 문화재의 본 모습을 해치는 경우도 있다”며 “1966년에는 탑신과 옥개석이 빗겨져 있어 바로 잡으려 했으나 나무로 된 수리기구가 탑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 탑이 많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사업단이 공개한 탑의 무게는 탑신부 7.7톤, 1층 옥개석 7.1톤, 2층 옥개석 6톤 등 총 25톤에 달한다. 배 단장은 “이번 해체수리는 크레인 등을 이용해 최대한 안정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전 과정을 덧집의 투명창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새로운 성보의 출토 가능성에 대해 배 단

장은 탑의 복원을 우선시 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배 단장은 “신라시대에는 탑 주위에 공양물을 묻는 풍속이 있어 탑 하부에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탑 해체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지내력을 검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보통 석탑 수리에는 6개월의 공기가 들지만 이번 석가탑은 총 3년 8개월의 공기가 잡혀있다. 2014년이 돼야 완벽히 복구된 본 모습을 대중에게 드러낸다.

조계사 성보위원이기도 한 배 단장은 “석가탑은 나라의 보물이면서도 선조들의 불심이 담긴 성보”라며 “불자 한명의 한명의 맘이 서린 당시 그 정성을 생각해 복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석가탑 신앙 의미에도 주목해야
석가탑이 위치한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배병선 정비사업단 단장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

은 이번 석가탑 해체 수리를 계기로 불자들이 국내 불탑들이 지닌 신앙의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타 스님은 먼저 “성보는 손대지 않도록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3년 전부터 기단석에서 균열이 발생해 부득이 하게 전면해체수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이번 복원은 1966년 발견 기록에 따르면 1038년 해체복원 이후 근 천년 만에 복원하는 의미를 지닌다”며 “석가탑이 수많은 불자들과 국민들의 정성과 관심이 있었기에 전년을 지탱해 올 수 있었다”며 그동안 석가탑 보존에 관심을 기울여온 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성타 스님은 석가탑이 단순한 삼층석탑이 아닌 1400개 한국석탑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이번 복원을 계기로 한국석탑과 당시 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했다.

스님은 “불국사에는 석가탑을 보기 위해 연 300만 명이 달하는 이들이 찾고 있다”며 “이는 탑 자체가 균열이 잡힌 예술가치

도 있지만 당시 선조들의 신앙심과 예술혼이 아직도 흐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석가탑은 그 이름이 상징하듯 장엄함이 아닌 신앙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의미와 신성함도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966년 수리 기록도 넣었으면
1966년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당시 부분 해체복원 작업에 참여한 정영호 단국대 석좌교수는 “이제는 다시는 석가탑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박사는 “10월 경 사리장엄을 모셨다. 2층 옥개석이 땅으로 떨어져 현상이 아수라 장이었는데 제2 탑신에서 사리장엄구가 나타났다”고 1966년 부분수리 당시를 회고했다.

정 박사는 “이번 해체 수리 이후 탑신에 66년 당시의 수리기록과 이번 수리 기록을 함께 넣었으면 한다”며 바람을 밝혔다.

1962년 문화재 전문위원 1호로 위촉된 뒤 2003년까지 문화재위원을 지낸 정 교수는 문화재 복원의 1세대다.

광범사 고려불상 사실은 흥천사 불상

불교문화재연구소, <조선미술사> 및 일제조사 자료 통해 밝혀

최근 성균관대박물관에 의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박물관장이었던 후지타 료사쿠(1892~1960)가 촬영한 유리원판이 복원 공개된 가운데 1937년 평양 광범사 천수관음보살좌상으로 소개된 보살좌상이 흥천사 극락보전 보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성균관대박물관은 “북한 제1사찰이며 1952년 소실된 평양 광범사 천수관음상”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본지 908호 게재)**

이에 대해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미등)는 10월 3일 “한국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결과 흥천사 극락보전에 봉안된 천수관음보살좌상과 동일한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유리 원판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1929년 발견된 <조선미술사>에 수록된 천수관음상 도판, 흥천사 소장 현판 기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선미술사>의 흥천사 천수관음상은 뒤쪽의 후불도, 본존불의 광배 등 성대 박물관이 공개한 유리 원판 사진과 동일하다.

노덕현 기자



흥천사 소재 천수관음보살좌상(위)과 성균관대 박물관에서 유리원판 복원후 광범사 천수관음보살좌상으로 소개된 불상(아래)



곡성 관음사 원통전 관음보살상



곡성 관음사 대웅전



보주 해체 장면

석가탑 해체 순간, 원만회향 기원

석가탑 얼마나 훼손됐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9월 27일 오후 1시 30분, 고요한 불국사 대웅전 안뜰에 목탁소리와 함께 반야심경이 울려 퍼졌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삼층석탑인 석가탑(국보 제21호) 전면해체수리가 시작된 것이다. 미리 만들어진 덧집 사다리로 관계자들이 올라섰다. 이들은 맨 꼭대기에 있는 구슬모양 장식물인 보주(寶珠)를 흰 천에 싸서 탑에서 분리했다.

742년 신라 경덕왕 원년에 세워진 뒤 1024년 고려 현종 당시 전면 수리된 이후 988년 만에 전면 해체에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석가탑 앞에서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보수작업의 원만 회향을 위해 기도했다.

성타 스님은 축사에서 “석가탑 전면 해체 수리는 1000년만의 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석가탑의 아름다움이 후대에 전해지도록 해체 수리에 원만 회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석가탑 전면 해체 수리는 2010년 12월 안전점검 당시 1층 탑 몸체를 받치는 상층 기단에 금(길이 1.32m, 최대폭 5mm)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기단 균열과 함께 상륜부 노반 모서리가 파손됐으며 보주 또한 금이간 상태.

46년 전인 1966년 탑신 1층 중앙 사리공(舍利孔·사리를 안치한 공간) 도굴 미수 사건으로 탑 일부가 훼손돼 부분 수리했으나 완전히 해체 후 복원하는 방식으로는 1270년 만이다.

해체 수리 작업은 2013년 상반기 완전 해체 후 부재(部材)를 세척, 강화 처리로 진

행된다. 2013년 하반기까지는 내부 적십이 보강되며 상층 기단 면석(面石·세움돌)과 갑석 사이에는 새로 만든 은장(부재를 연결하는 부속품)을 끼울 예정이다.

없어진 부재는 기존 부재와 같은 재질의 돌로 보강된다. 전면 해체 수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0호 이상 석장의 자문을 받아 30억원을 들여 3년 8개월 뒤인 2014년 12월 마무리된다.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석가탑은 높이 10.8m의 화강암체 3층 석탑으로 1966년 석탑 보수 공사 도중 2층 탑신 뒷면 사리공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국보 제126호)이 발견되기도 했다.

<범화경> ‘견보탑품(見寶塔品)’의 석가여래와 다보여래 설화에서 연유한 불국사 석가탑과 다보탑. 석가여래가 설법할 때 다보여래가 높이 2만 리, 너비 1만 리의 거대한 탑이 솟았는데 그 지혜가 서린 석가탑이다. 다시 본모습을 드러낼 그 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덕현 기자

석가탑 보수 연혁

- 742년 석가탑 조성(신라 경덕왕 원년)
- 1024년 해체 수리(고려 현종 15년)
- 1036년 지진 피해 보수(고려 정종 2년)
- 1038년 지진 피해 보수(고려 정종 4년)
- 1596년 벽락으로 상륜부 손상 (조선 선조 20년)
- 1966년 도굴 시도로 훼손 부분 해체 수리
- 1970년 상륜부 복원
- 2012년 전면 해체·복원



해체 과정을 지켜보는 불국사 스님들



덧집에 둘러싸인 석가탑 모습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불교계에 새로운 선물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2012년 신제품 경전학습기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경을 일부씩 공부하다 보면, 일관성이 떨어지며 기억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이센스 경전학습기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송경과 영송의범을 일관성 있게 편집하여 탑재 하므로써 가르침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화면을 보면서 듣고 반복할 수 있도록 체계성과 정확한 강사의 음성을 들어 학습할 수 있도록 짜여진 시청각 경전으로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영불(念佛), 영송(念誦) 모음

- ▣ 영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해연선사 발원문, 불설 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상계,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장회문, 대불정능염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पाल양신주경, 보광삼매론
- ▣ 영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49재편, 시식·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중국어·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콘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창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